

지역 포교 성공 비결, '공동체 사상' 유무

조기룡 박사, 선문화연구 15집에서 전국사찰 포교사례 고찰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영향력을 지닌 사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사찰의 외형을 키우기보다 공동체 정신 함양의 '소프트웨어'에 충실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2013년 4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조계종 포교원과 함께 전국사찰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수는 <선문화연구 15집>에 실린 조사논문 '도시와 농어촌 사찰의 지역친화 포교방안'에서 "연구 결과 현행 도시와 농어촌 사찰의 지역친화 방안은 크게 '문화'와 '복지'로 쪼개지며, 농어촌의 경우 환경운동과 농촌경제 활성화도 이뤄지고 있다"며 "중요한 점은 공동체 사상의 유무"라고 말했다.

'공생 사상'·'수행결사'가 신도 원동력

조 교수는 먼저 도시사찰로 안양 한마음 선원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조 교수는 "1972년 대행 스님에 의해 창건된 한마음 선원의 지역친화 활동의 특징은 복지·문화시설을 설립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일반 사찰에 비해 봉사실천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조 교수는 "한마음선원의 활동 이면에는

한마음선원, '공생사상'으로 봉사
해남사, '수행결사'로 신심 고취
삼화사, '불교대학' 지역인문 배출
정토사 '친환경 공동체' 구성

"한마음 공생"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며 "문화활동은 사찰의 문화강화, 복지활동은 법형제회의 봉사 및 병원자원봉사활동 등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한마음선원 신도회는 6년 전부터 병원자원봉사 전담팀을 운영해 안양, 군포 등 인근 지역의 요양병원에서 9~12명씩 조를 이뤄 1주일마다 2~3회씩 이뤄지는데 이러한 활동 이면에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공생 실천의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울산지역 친화포교로 해남사의 사례를 들었다. 해남사는 스님 4명과 종무원 6명이 있는 작은 사찰이지만 신도 수는 1200세대가 넘는다. 해남사는 신도가 중심이 돼 지역에 활발한 실천불교를 행하고 있다.

조 교수는 "해남사의 친화포교는 무료급



안양 한마음선원의 공생 실천 프로그램의 한 모습. 공생이란 공동체 의식 함양이 주목적이다.

식소인 수자타의집 운영과 국제성취포상제, 해남가족 한마당 잔치 등을 통해 진행되는데 한마음 공생 사상과 같이 '재가간거 90일 수행결사'가 그 실천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은 전통공동체 정신이 효과적

조 교수는 반면 농어촌 친화활동은 교육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조 교수는 "동해 삼화사의 경우 2000년 동해 불교대학을 세워 760여 명의 졸업사와 120여 포교사를 배출했다"며 "이들이 지역봉사활동에 나서며 삼화사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삼화사는 노인전문요양원, 바람길 유치원 등 지역에 복지 시설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당진 정토사의 경우 농촌공동체 사상에 입각해 일자리 창출사업에 나서고 있다"며 "이들 활동과 사업은 모두 농촌의 전통적인 공동체 사상에 연원을 두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끝으로 "공동체 운동으로 문화센터 운영, 노동복지재단 등, 생령조합 등을 추진한다면 동시에 지역포교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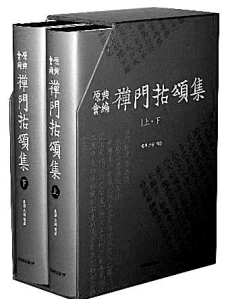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울주 종진스님 '원전회편 선문염송집' 출간

고려 직각혜심 선사(원전)의 <선문염송집>에 실린 인명을 일일이 검토하고 대조해 원전과 함께 정리한 책, <원전회편 선문염송집>이 출간됐다.

선문염송집은 혜심 스님이 채집한 공안 1125칙과 수신사 제3대 국사인 몽여 스님이 모은 347칙을 다한 공안집으로 최고의 선서로 꼽힌다. 지난 수백 년간 한·한 화선 수행의 교본이 되었으며 간화선의 정착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 조선 후기 불교 강원의 최종 단계인 대교과에서 화엄경과 함께 강의하던 책이다. 30권의 <선문염송집>을 종진스님은 이번에 상하 2권 1600여 쪽으로 엮었다.

해인사 월원 울주 종진 스님이 펴낸 이 책은 각 화두의 출처를 확인해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해졌고 원전의 오류도 바로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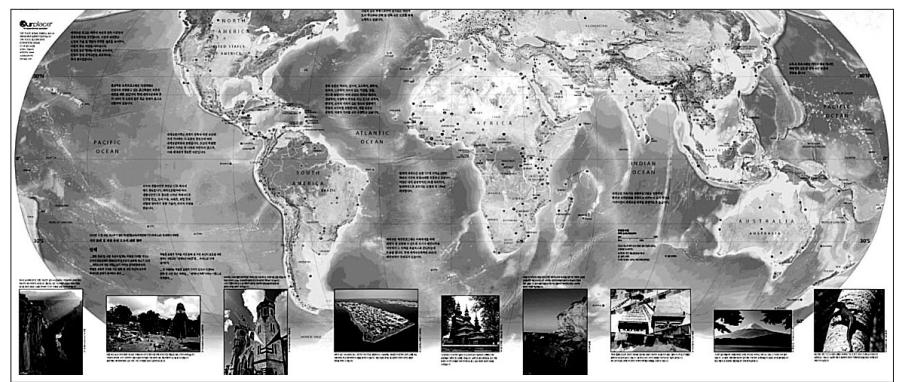


문들에서 인명을 오인한 부분이 더러 있고, 사법관계(司法關係)를 잘못 파악한 부분도 몇 군데 발견되어 회편(會編)으로 출간했다"고 편찬이유를 밝히고 "참선수행자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돼, 한국의 선법(禪法)이 크게 드날리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노덕현 기자

'석굴암' '불국사' 등 세계문화유산 한눈에

문화재청·유네스코, 2014년판 세계유산지도 배포



해인사대장경판전, 불국사·석굴암 등 981점의 세계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유산지도가 배포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월 6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제작한 2014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지도'를 한 글판으로 개칭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유산지도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대장경판전 등 불교문화재를 비롯해,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역사

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전세계 981점의 세계유산 분포 현황이 담겨 있다.

유네스코는 2002년부터 세계유산 정보를 담은 세계유산지도도를 제작해 배포해왔다. 지도는 전지 885mm×580mm 크기의 포스터 형태로 총 5만 부가 제작됐다. 전국 10개 세계유산지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비치될 예정이다. 또 전자문서 형태로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원불교 태동 '불교개혁론' 영향"

정순일 교수, 소태산·만해·학명·용성 스님 등 관계 조명 원불교 개교 100년 기획세미나 기조강연

"원불교 근간에는 만해와 학명, 그리고 용성 스님의 사상이 깃들여 있다."

정순일 원광대 교수는 2월 7일 원광대에서 열린 원불교 개교 100년 기획 세미나에서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가 만해 스님과 학명 스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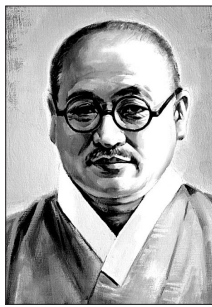
정 교수는 기조연설 '소태산의 불교개혁 운동과 학명, 만해, 그리고 용성'을 통해 "소태산 대종사가 1919년 10월 6일 가르침에 불멸을 연원을 두고 있다는 선언을 하는데 이는 당시 불교개혁론자들이 주장하던 최신 이론들이 밀바탕에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소태산 대종사의 불법선언은 오랜 시간 축적된 불교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했다. 그 시작은 학명 스님과 의연의 오해가 거슬러 올라간다"며 "스님들이 이전부터 가까웠던 그들은 1919년 3월 만났으며 소태산 대종사는 그에게서 불교의 핵심과 조

선불교 개혁방향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 근거로 "소태산 대종사는 자신의 상수제자인 정산을 학명 스님에게 보냈고 학명 스님은 그를 상좌로 거두 명안이라는 범명까지 주었다"며 사례를 들었다.

정 교수는 또 "학명 스님과 소태산 대종사는 선사상의 면에서 공명하고 많은 선문답을 교환하였는데 그 선문답들은 <대종경> '성리품'에 수록돼 있으며, 매우 수준 높은 것들이었다. 1920년 봉래정사에서 이뤄진 소 대종사의 법문은 전통 선종에서의 가르침과 상통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학명 스님과의 만남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학명 스님과 소 대종사는 1924년 동시에 하산해 학명 스님은 내장사에서 불교개혁 행보를, 소 대종사는 불법연구회를 창립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둘이 동시에 하산하는 것은 만



소태산 원불교 교조



만해 스님



학명 스님



용성 스님

해 스님이 3일간 이들과 머물며 일종의 모티프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만해 스님이 다녀간 뒤 학명 스님은 밤낮으로 고민 후 두문불출 10년 서약을 깨고 하산해 선승일지 실현을 기치로 내장사 중창불사를 일으켰다. 자신의 혈육처럼 소 대종사를 아낀 학명 스님은 만해 스님의 내방을 알려 세 사람은 밤새 세계정세와 일제현황, 불교계 개혁 과제 등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만해는 시로서 두 사람의 하산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학명 스님과 소 대종사의 행보는 갈린다. 소 대종사의 불법연구회가 내장사를 출발지로 삼는 일이 내장사 스님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 이에 전주를 거쳐 익산에서 불법연구회가 창립이 됐으며 이는 원불교의 모태가 됐다.

정 교수는 또 용성 스님과 소태산 대종사

의 인연에 대해서도 밝혔다. 정 교수는 "용성 스님은 1927년 대각교를 대내외에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농·실천불교를 전개했는데 1926년 불법연구회 경성출장소가 출범할 때 발기인들 중 일부가 대각사 신도였다. 일반인이 쉽게 불법에 들게하는 생활 불교 운동과 사원경제의 자립을 위한 선농 불교 등의 대각교 운동과 소태산 대종사의 개혁방향은 매우 맞았다. 다만 차이는 용성 스님은 독신을 강조했다. 소태산 대종사는 만해 스님의 견해를 택해 승려 결혼을 장려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하나의 독립종단으로 전통불교와 거리를 두고 불교운동을 지향한 대각교 운동이 새로운 교단을 일구던 소태산 대종사에게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총분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광연구원, 제3회 전법학술상 논문공모

불광연구원이 제3회 전법학술상 논문을 공모한다. 전법학술상은 전법과 교화의 학술담론을 개발하고 현대사회에서 불교역할과 전법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모주제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바람직한 전법과 교화'로 △전법교화에 대한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 분석 △전법교화의 역사적 사례와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전법교화의 현대적 방법론 제시 △전법교화의 모범사례 발굴과 해외사례 비교연구 △전법교화에 헌신한 인물에 대한

연구와 전법론 분석 등이다.

지원 자격은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국내외 학자로 전공 무관하다. 상금은 신규논문 대상인 바라밀상에 500만원, 전법상에는 300만원이 주어진다. 발표논문에 주어지는 보현상은 300만원이다. 제출 방법은 연구원 전자메일(baramil74@hanmail.net)에 4월 30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9월 30일까지 완성 논문을 보내면 된다. 수상자 발표는 10월 30일 공지되며 발표회 및 시상식은 12월 7일 열린다.

노덕현 기자

학제의 시간

힘의 / 원천 / 빠르게 / 배우는

법화경 핵심사상

(법문자료집)

묘법연화경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경전이다. 무한한 시간과 공간에서 석가세존의 자비 원력은 우리를 우주의 대 광명으로 끌어들이는다.

법화경은 7권 28품이 전부 69,384자로 구성된 구마라습 한역본이다. 글자 한자 한자가 모두 부처님 그 자체라 이름하며, 이 법화경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아플수도 없는 마음의 애환, 아픔, 슬픔과 고독을 대변해주는 생명의 빛이며, 경제, 사회, 군사, 정치, 종교를 창조한다. 신라의 원효스님께서 법화경 중요사에서 극찬 하였고, 인도에 유승보살 같은 분이 세상에서 최고 최대의 보배로운 경이라 극찬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화경의 "핵심적인 사상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은 일상 생활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있을 뿐 더러, 이론과 실천이 기쁨과 찬물과 갈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법화경의 어느 일부분만을 가지고 마치 법화경의 모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법화경핵심사상"에서 법화경 28품의 핵심 요지를 명쾌하게 드러내어 법문 자료와 동승 기도 하는데 꼭 필요하도록 집필 하였다.

송월스님 편저 / 신국판 양장본 / 값 15,000원 / 260쪽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금강경요해

金剛經了解

반야, 깨달음의 지혜로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 요해 금강반야. 깨달음의 지혜와 경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 아누타라삼삼보리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지침서
- ▲ 깨달음의 경계와 자기 점검
- ▲ 깨달음 세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 법인지(法印)로 깨달음을 얻는 길
- ▲ 아누타라삼삼보리는 수행 성취의 지혜가 아니다.
- ▲ 무엇이 깨달음이며, 깨달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 ▲ 깨달음의 지혜 아래의 뜻을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실제
- ▲ 일각요의(一覽了義)로 꿰뚫은 금강경요해
- ▲ 금강 실상과 부사의 공덕세계를 드러낸 지혜의 가르침
- ▲ 불지혜 최고괴상의 깨달음, 아누타라삼삼보리 깨달음 경계는 어떤 한가?
- ▲ 무위실상 일성원음 본심과 본과와 본성의 세계

세용스님 역저 / 신국판 / 456쪽 /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김백만 편저 / 신국판 양장본 / 값 50,000원

지금 바로 발송하십시오

사찰법당앰프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스님들께서 원하시던 꿈의 마이크 탄생!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전국일괄 설치비 : 1,800,000원
- 법당전문 스피커
- 무선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